

[Press Release] 총 10쪽

《Butterfly Dreams》



- 2024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 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단체전
- 김도연, 윤지영, 이안 하, 이코즈 작가 참여
-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이 현실을 인지하고 재현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자 기획
- 총 21점의 작업이 새로 리뉴얼한 에이라운지의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Butterfly Dreams 나·비·꿈》

참여작가: 김도연, 윤지영, 이안하, 이코즈

일 정: 2024년 8월 10일(토) - 8월 31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개관시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최하림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는 2024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김도연, 윤지영, 이코즈, 이안하의 단체전 《Butterfly Dreams》를 선보인다. 전시는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이 현실을 인지하고 재현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른바 '초 정보화 시대'의 쏟아지는 자료를 보고 듣고 느끼며 명확한 본질에 다가가고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빠졌던 것도 잠시, 정보의 평등을 약속했던 인터넷망은 투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두었던 불확실성을 꺼내 들었다. 이제 우리는 무너져 내려가는 현실의 경계 속에서 마치 장자의 꿈처럼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정도로 불분명한 감각 속에서 헤멜 뿐이다. 네 작가는 파편과도 같은 기억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거나 일상의 요소들을 무작위로 편집해 공간이 갖는 현실 감각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언어를 빚겨 가는 내부 구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작가의 신체에 집중해 비가시적 요소들을 회화로 옮겨옴으로써 작금의 현실에 대응한다.

○작가 소개

김도연 (b.1992)

김도연(b.1992)은 개인의 경험이 공유되는 방식을 작업의 주제로 삼는다. 경험이 전달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및 확장되는 이야기의 생명력에 주목하여, 개인의 서사뿐만 아니라 넓게는 크고 작은 모든 생명과의 대화를 통해 비가시적 요소까지 포괄한 상생의 가치를 환기하고자 한다. 전시를 보고 간 관객에게 편지를 받아 이에 대한 답장으로 드로잉 연작을 만들기도 하고, 신체에 대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작가와 소통하며 2인전을 기획하기도 했다. 김도연은 세필로 그린 유화나 판화를 주요 매체로 하는데, 세밀하고 집요한 그리기 방식을 거쳐 그 과정에 작가의 이야기와 몸짓을 더해 소통의 방식을 확장해나간다.

김도연 작가는 건국대학교에서 현대미술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했다. 에브리아트, 서울(2022); 공간:일리, 서울(2021); 얼터사이드, 서울(2021); 어쩌다갤러리 2, 서울(2019)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산-한량», 챔버 1965, 서울(2023);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 갤러리인 HQ, 서울(2023); «○○○○○», 오온, 서울(2022); «수행하는 회화», TINC, 서울(2021); «이제 침대를 망가뜨려 볼까», 아트스페이스 풀, 서울(2019);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2018) 등의 기획전에 참여한 바 있다.

윤지영 (b.1984)

윤지영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개인의 삶의 환경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더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행동양식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감춰져 드러나지 않는 내부 구조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화한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과 소통 방향이 개인의 인식의 방향을 점차 내부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간주한다. 이는 자신의 상태에 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끈다. 최근 작가는 한국 민담, 설화, 전설, 전래 동화 등을 탐구하며 현 상황에서 상상력, 환상, 망상 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윤지영은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시카고 예술대학 대학원의 조각과를 졸업했다. 최근 참여한 전시로는 «하나의 사건», 서울시립미술관, 서울(2020); «밤이 낮으로 변할 때», 아트선재센터, 서울(2019); «에이징 월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9); «생태감각», 백남준아트센터, 용인(2019) 등이 있다.

이안 하 (b.1997)

이안 하(b.1997)는 평면 안에서 임의의 소재들과 다양한 매체를 불규칙하게 편집해 캔버스 내부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안 하의 작업에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은 작가에 의해 분할되고 병치됨으로써 그림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며 공간이 갖는 현실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는 무작위로 쏟아지는 정보와 이미지에 점차 무감각해져 가는 동시대적 현상을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가상 공간과 현실의 틈이 점차 좁혀져 가는 고도화된 기술 사회에서 평면 미술이 갖는 설득력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시각예술대학에 재학중이다. Fragment Galley, 뉴욕(2023); 래빗앤티아거, 서울(2022)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in media res», The Blanc Gallery, 뉴욕(2023); «Standouts», Fredric Snitzer Gallery, 마이애미(2023); «시간의 궤적», 스페이스 유, 분당(2022) 등의 단체전에 참여해왔다.

이코즈 (b.1997)

이코즈(b.1997)는 무의식을 통해 축적되는 기억과 그것을 기술하는 기록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개인적 차원의 기록물이 이미지로 중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술적 상상을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반복되는 꿈의 기억을 기술한 꿈 일지에서 출발한 «J-D» 연작은, 꿈의 바탕이 된 특정 기억과 꿈속 장면이 서로 다르게 전개되는 데서 겪은 혼란을 토대로 한다. 작가는 이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꿈을 글로 기록하고 그 일부를 회화 작업으로 옮기는데, 파편과도 같은 기억과 장면, 기록들은 회화의 소재로 화면 위에 오르며 각자 독특한 위치와 자리를 부여받은 채 때로 과장, 축소, 변형된다. 이로써 작가의 화면은 그가 겪었던 꿈이나 기억과 중첩되면서도 또 다른 서사가 발생하는 회화적 사건의 장소로 변모한다. 한편 «훈련일지 드로잉» 시리즈는 작가가 사회인 야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영상과 글로 소상히 남겨 온 훈련 일지에서 출발한 드로잉 및 회화 작업이다. 결국, 이코즈에게 ‘기록’의 행위는 작가 내부의 혼란에 대한 대응책임과 동시에 작가를 작업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코즈는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작가는 A.P. 23, 서울(2023) 및 공간풀무질, 서울(2021)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등근 빈자리를 쥐고», 갤러리 앵앤플로우, 서울(2023); «소생된 폭발음을 기록하며», 안팎 스페이스, 서울(2023); «모호한 신호를 감지하는 법», A.P.23, 서울(2023) 등의 기획전에 참가했다.

○ 전시 서문

현실의 경계에서

최하림, 에이라운지 디렉터

장자는 어느 날 너무나 생생해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꿈을 꾸다. 나비가 되어 희희낙락 날갯짓하며 춤을 추는 꿈. 그 속에서 장자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알지 못한다. 마치 내가 원래는 나비이고 반대로 꿈속에서 장자로 살아가는 것만 같다.

1990년대 초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www)이 도입되면서 점차 정보의 획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어디서든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누구든 평등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투명하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고, 이는 유례없던 경제적 성장과 맞물리며 전 인류가 어딘지 모를 발전의 종착점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듯한 달콤한 상상을 선사했다. 그러나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인 것은 명백한 진실이 아닌 정제되지 않은 채 쏟아져 내려오는 정보와 이미지, 혹은 정보 제공자에 의해 교묘히 편집된 필터 버블뿐이었다.

미래를 가리고 있던 낙관의 연기가 걷히자 더는 무엇이 ‘진짜’인지는 중요치 않게 되었다. 초실감을 내세우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은 다양한 차원의 세상(universe)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더는 공상의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뜨거운 감자였던 메타버스(metaverse)는 어설픈게나마 다중현실의 맛을 보여주며 또 다른 현실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성큼 열어주었다. 그런데 가상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먼 미래에 설계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방증한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가상 세계가 아닌 진짜 세계일 확률이 10억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도연, 윤지영, 이안 하, 이코즈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마주한 현실을 인지하고 재현한다. 이코즈는 반복되는 꿈의 레퍼토리를 회화의 주제로 가져와 현실과 중첩된 시공의 틈바구니를 포착했다. 모호한 꿈의 공간은 <J-D> 연작에서 소실점으로 뻗어 나가는 선과 이를 분절시키는 전면에 배치된 사물들로 현시된다. 작가에게 회화적 공간은 기억과 무의식이 교차했다가 다시금 멀어지는 혼란의 서사를 내포하는 곳으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배경으로 하는 꿈의 공간은 실재하지만 동시에 과장되고 절단된 허구의 옷을 입는다. 이로써 집요하게 기록해 실재를 지연시키려는 기대는 좌절되고, 꿈도 현실도 비껴가는 제 3의 공간만이 자리를 내어준다.

이안 하의 과잉 정보에 허덕이며 인지 체계마저 와해한 작금의 세태를 평면 작업에 던져진 오래된 속제에 대입한다. 회화의 공간이 항상 현실 세계를 모방한 환영에 불과하다는 2차원의 한계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환되고 지워지기도 하며, 공간의 실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경험했다고 믿어지는 뚜렷한 기억을 배경으로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호출된 이미지의 잔재 또한 화면 속에 여기저기 편집되어 들어가 시공의 선형적 흐름을 방해한다. 우키요에의 구도를 연상시키는 <Twigs> 전면의 나뭇가지는 웅이처럼 묻어난 발자국을 따라 회화의 공간을 평탄화하고, <Daydream>, <Sweet Spot Within Riff>의 화면

중양은 여러 겹이고 잘려나가 공간의 깊이 또한 교란된다. 마치 열기설기 설켜 고장 난 기억 장치의 단면을 그려놓은 듯 편집된 풍경은 오히려 시공을 벗어나는 여러 개의 겹을 쌓아 미지의 차원으로 무한히 뻗어 나간다.

한편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믿을 수 없는 세계에서 개인의 서사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김도연과 윤지영의 작업은 현실에 천착하지만, 그 이면에 묻힌 서사에 주목한다. 윤지영은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 사회 구조를 대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형 언어로서의 소통을 감행한다. 몇 해 전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다준 공간과 소통의 단절은 자의식의 방향을 내부로 몰아넣었다. 내부를 가늠할 수 없는 흑색의 거울은 모든 상을 반사해내고 한쪽이 툭 불거져 터진 구형에는 간신히 두 팔을 맞잡고 있는 형태의 조형물이 비집고 나왔다. 분절된 신체와 깨져버린 완전한 구형(球形)은 견고하리라 믿었던 어떠한 실체도 부정한다. <곱씹어 끄집어낸_……>의 세 유기체적 형태들은 서로를 맞잡고 완전한 듯 보이나 팔은 모든 상대에게 닿지 않고 한쪽은 일그러져 불안을 자극할 뿐이다.

김도연은 언어의 구조를 뛰어넘는 몸의 서사로 너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상상력의 가득한 신화의 세계는 화면을 가득 메운 세필의 선들로 재탄생했다. 인지 체계를 벗어나 작가가 감각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한 몸의 언어로 쓰인 회화적 표현은 마치 꿈의 서사와 같이 경계를 가로지른다. <피오피오타히(한 마리의 피오피오타새)>, <테와이코루푸푸(춤추는 모래)> 속 사람의 신체는 동물의 몸과 혼용되고, 성별의 구분 또한 모호하게 그려진다. 전경은 넓은 면으로, 후경은 세필로 묘사된 <산(알라딘)>은 해 질 녘의 따스함과 동틀녘의 어스름 그사이를 헤매며 미지의 공간으로 관람자를 초대한다. 어떠한 제약 없이 그려진 김도연의 인물과 풍경에는 약동하는 이상적 생명력이 가득하며 신체를 가득 메우는 심장 박동은 존재의 유일한 징표로서 나의 실재를 외연으로 넓힌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감각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붕 떠올라 손에 잡히지 않는 어딘가로 아스라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확실성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은 더는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 미로와도 같은 시공의 협곡에 갇힌 한 마리의 나비가 ‘나’라면 어디로든 빠져나가지 않고 부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답일지 모르겠다. 무너져 버린 시공의 모습이 기괴하리라고 단언할 수 없고, 현실 이면에 켜켜이 쌓여있는 시공 사이를 허우적거리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도 아직은 유보하고 싶다. 이제 우리는 현실의 경계를 서성이며, 마치 장자의 꿈처럼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정도로 달큰한 환상 속에서 유유히 헤맬 뿐이다.

○ 대표 작품



김도연
산(알라딘)
2023
100 x 100 cm
oil on cotton



윤지영
_없는 몸: 틀 없는 몰드 그리고 하나-여러-얼굴
2021
18 x 32 x 19cm
silicone, transparent threads, urethane expanding fo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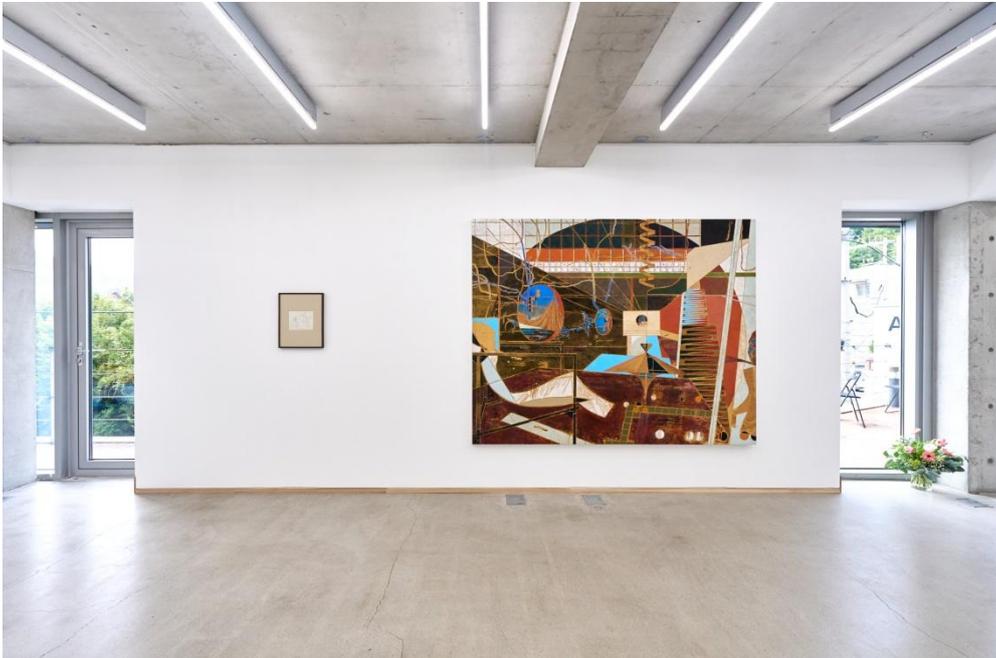


이안 하
Daydream
2024
188 x 122cm
watercolor, ink, gouache, acrylic and charcoal on Jangji paper



이코즈
J-D 죽장면 상옥계곡-마을 맨 끝- 나무 대문으로 #A
2024
181.8 x 227.3cm
oil on canvas

○ 전시 전경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Seoul